

칼빈의 教會觀

신 부 윤

〈합동신학원교수·조직신학〉

칼빈의 교회관은 그가 스트라스버그(strassburg)에 머물고 있는 동안(1538. 8.—1541. 9.) 성숙하여졌다. 그리고 이 성숙해진 자신의 교회관을 그는 基督教綱要 第二版(1539) 제 4 권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기독교강요 제 4 권의 총 20 장 중 19 개장에서 교회를 여러 관점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기독교강요는 주로 원수들의 공격과 비방에 대항하여 改革派 信仰을 옹호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서는 항상 로마 카톨릭 教會의 惡習과 偶像崇拜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부패한 로마教會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의 交通을 중심으로 한 教會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교회관을 혼란시키며 불순케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改革해 나아갔다. 그리고 칼빈이 마음에 두고 있던 교회는 주로 제네바, 바젤, 베른, 스트라스버그의 교회였으나, 그러나 국한된 이들 작은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포괄적인 교회관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칼빈의 교회관을 教會의 本質, 無形教會와 有形教會, 教會의 標識, 教會의 勸懲의 순서로 고찰하고자 한다.

I. 敎會의 本質

칼빈에 있어서 敎會는 그리스도인의 共同體로서의 有形的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¹⁾ 그것은 聖徒들의 단체, 곧 被擇者 全體를 뜻한다.²⁾ 하나님의 ‘은밀하신 선택’과 ‘內的인 부르심’은 칼빈의 교회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는 選擇을 교회의 기초로 보기 때문이다.³⁾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하나님만이 그들을 印치심으로 품안에 품으신다(엡 1:13). 적은 수의 사람이 대중 속에 숨겨지고 몇 알의 밀알이 쭉정이 더미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 敎會를 아시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는 은밀한 선택이라고 칼빈은 역설한다.

그러나 敎會의 統一性を 생각하지 않는 限, 選擇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⁵⁾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다른 肢體들과 더불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장래 유업에 대한 아무런 所望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共同的’ 혹은 ‘普遍的’이라 불리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選民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엡 1:22 이하), 서로 聯合되고 密着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롬 12:5; 고전 10:17; 12:12, 17).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聖靈 안에서 살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同一한 永生の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도

1) Peter Barth는 ‘칼빈이 말하는 敎會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칼빈을 교회의 有形的인 면만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Calvin's Verständnis der Kirche* (Zwischen den Zeiten, 1930), p. 217.

2) Inst., N. 1, 2; OS. 5, 4, 2 (이것은 Calvin Opera Selecta의 略字로 칼빈 選集 제 5권 4페이지 2行을 뜻한다.)

3) Ibid.

4) Ibid.

5) Ibid.

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엡 5 : 30)⁶⁾

자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肢體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信仰의 確信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救援은 확고부동한 基礎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우리의 구원만은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먼저는 하나님의 選擇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둘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攝理가 그러하듯이 흔들리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⁷⁾ 選擇敎理는 인간적인 것을 모두 앗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선택 교리는 敎會로부터 일체의 放心과 自我能力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더 힘있게 자기 일을 완수하게 한다. 선택 교리는 교회로부터 일체의 거짓된 支柱들을 빼앗아감으로 교회로 하여금 世上權勢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無敵의 對決을 결단케 한다. 칼빈의 敎會論에 따르면, 선택 교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平安과 確信과 자극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⁸⁾

칼빈에 있어서 敎會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다(엡 1 : 23).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 오시는 영역이 바로 이 교회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때문에, 聖徒의 聯合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엡 4 : 12).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며 서로 한 몸이 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生命的이며 有機的인 관계를 가진다. 교회는 차디 찬 기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有機體, 곧 서로 봉사하며 도와주는 共同體인 것이다.¹⁰⁾ 그리스도의 몸, 곧 성도의 공동체 사상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견해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

6) Ibid.

7) Inst., IV, 1, 3; OS, 5, 6, 3.

8)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tr. by Harold Knight, 1956). p. 191.

9) Inst., IV, 3, 2; OS, 5, 44, 25.

10) Inst., IV, 1, 2; OS, 1, 466

제를 가진다.¹¹⁾

敎會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敎회의 主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떠한 個人이나 團體도 敎회를 지배할 수 없다. 칼빈에 있어서는 어떠한 敎權主義도 용납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만이 그 統治者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敎권주의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박탈하는 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人間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¹²⁾ 그리스도는 이와같은 통치자의 자격으로 敎회를 세우셨으며, 그 규례를 만드시고, 직원들을 구성하시며, 그 직원들에게 權威의 옷을 입혀 주시고, 또한 현재 이 敎회안에 계셔서 직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칼빈은 敎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人的 은사와 봉사를 해석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머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兄弟愛로 結束되고 물질 면에서 有無相通하게 된다.’¹³⁾ 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자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봉사에 따라 상호 의존하게 될 때, 敎회의 統一性을 파괴하게 될 개인의 主權行使가 제거된다. 이렇게 칼빈은 敎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意識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II. 無形敎會와 有形敎會

칼빈은 敎회의 有形的인 면과 無形的인 면을 꼭 같이 강조한다. 1536

11) 칼빈은 신자가 하나님의 意志에 따라 敎회로서의 한 機關(institution)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 그리고 敎회는 인류를 敎育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점 때문에 敎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Inst., IV, 1, 4 참조. 한편 로마敎會는 이 교리로 敎회의 絕對權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支配하였다.

12) Calvin's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Grand Rapids: Eerdmans, 1965), p. 83.

13) Calvin's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73), p. 268.

년의 基督敎綱要 初版에서는 교회의 무형적인 면 외에는 거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으나, 그후 부셔(Bucer)와 접촉하면서부터 有形的 共同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1539년 기독교강요 제 2판에서 유형교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1543년의 기독교강요 제 3판에서는 부셔의 이와같은 사상적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¹⁴⁾

칼빈에 의하면 성경은 교회를 두 면에서 본다.¹⁵⁾ 즉 무형적인 면과 유형적인 면이다. 그에 의하면 이 敎會는 ‘養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聖靈의 聖化的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肢體가 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¹⁶⁾ 이것은 현재 地上에 살고 있는 성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選擇 받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포함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칼빈이 교회의 無形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無形敎會는 하나님의 靈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被擇者들의 단체, 곧 信者들의 共同體인 것이다.¹⁷⁾

동시에 칼빈은 교회의 有形性을 강조하면서, 無形敎會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유형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이 교회와 계속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 칼빈에 의하면 유형교회는 ‘은 地球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禮拜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總數를 의미한다. 그들은 洗禮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聖餐에 참여함으로 참 敎理와 사랑에서 하나가 됨을 증명한

14) Wendel, op. cit., pp. 294-295.

15) Inst., IV. 1, 7.

16) Ibid.

17) 모든 被擇者로 구성된다는 無形敎會의 概念은 어거스틴의 사상이었으며 Wycliffe는 이 사상을 항상 즐겨 인용하였다. cf. Augustine, *City of God, passim*; On Baptism III. XIX.26; Wycliffe, *De ecclesia*, Wycliffe Society edition, p. 37.

18) Inst., IV. 1, 7.

다. 그들은 主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씀의 傳播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말씀의 事役을 보존한다.’¹⁹⁾ 그러나 이 유형교회에는 선택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遺棄者도 섞여있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敎會 안에는 이름과 겉모양 뿐, 그리스도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僞善者들이 상당히 섞여있다. 여기에는 야심만만한 자, 탐욕에 불타는 자, 시기하는 자들이 있으며, 불평과 불만에 쌓인 자, 아주 불결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수다하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잠시나마 용납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世俗 法廷에서 定罪를 받지 않았거나 엄격한 규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⁰⁾ 그러므로 敎會의 會員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실제로 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다. 많은 쪽정이가 알곡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다.²¹⁾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만이 교회의 窮極의이며 本來的인 判斷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한편 칼빈은 유형교회와 관련하여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²²⁾라고 말하고, 靈的生活 全體와 聖化全體를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에 의존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은 有形敎會를 논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어머니’라고 하는 단순한 명칭을 통해서 敎會를 안다는 것도 매우 유익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우리를 그 腹中에 잉태하고, 解産하여, 그 품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지 않는 限, 그리고 우리가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天使와 같이 될 때까지(마 22 : 30) 우리를 보호하고 감독하며 지켜주지 않는 限, 우리는 生命에 들어가는 방법을 달

19) Ibid.

20) Ibid.

21) Inst., IV. 1, 2, 7; OS.5, 28 ; 5, 12, 12.

22) 여기서 ‘어머니’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교회는 有形敎會를 말하며, 또는 신자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敎會의 어머니로서의 機能은 救援에 必然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러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全生涯를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學校에서 떠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우기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이사야(사 37 : 32)와 요엘(욘 2 : 32)이 증거한 것처럼, 어떠한 赦罪나 어떠한 救援의 희망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²³⁾

여기서 칼빈은 싸이프ريان(Cyprian)²⁴⁾과 어거스틴(Augustine)²⁵⁾의 그 유명한 敎會에 대한 定義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救援이 없다고 하는 思想은 일반적인 傳統과 루터(Luther)²⁶⁾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 敎理는 또한 로마 카톨릭 敎會의 思想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 敎會의 여러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격렬하게 공격해 온 칼빈이 어떻게 로마 敎會와 함께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로마교회는 이 교리로 교회의 絶對權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교리으로써 모든 교인들을 지배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로서의 한 機關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 둘째로 이 교회는 人類를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²⁷⁾ 그러므로 위에서도 말했지만, 칼빈은 이 점에 대하여 初代 敎會의 敎訓을 意識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또한 敎父들의 증거를 신중하게 채택했던 것이다.

23) Inst., N. 1, 4.

24) Cyprian, Letters N. 4 ; 1 xxiii. 21. 그리고 싸이프ريان은 그의 著書, *On the Unity of the Catholic Church* vi에서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없다’고 하였다.

25) Augustine, *Enchiridion* xvii. 65. 어거스틴은 여기서 敎會 밖에는 赦罪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Sermons lvi. 4, 5; First Epistle of John iii. 1를 참조.

26) Luther, *Great Catechism, third article of the Creed.*

27) Inst., iv. 1, 5.

Ⅲ. 教會의 標識

칼빈은, 루터와 멜랑톤(Melanchthon)이 아우구스부르크 信仰告白²⁸⁾에서 인정한 것처럼, 참된 教會를 식별하는 데 객관적 표준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 두 표지를 통하여 칼빈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였던 것이다.²⁹⁾ 칼빈은 그 두 표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며, 그리스도께서 制定하신 聖禮가 그대로 시행되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³⁰⁾ 칼빈은 이와같이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였다.³¹⁾ 다소 道德적인 결함이나 病弊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사역이 존재하기만 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主要敎理나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승인해야 할 信條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는 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聖禮의 합법적인 제도를 폐하거나 허물치 않는 限, 사소한 잘못들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한다.³²⁾

28) Augusburg Confession, art. vii and viii. 여기서 교회는 ‘福音이 바로 전파되고, 聖禮가 바르게 시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定義되었다.

29) 改革派 神學者들은 교회의 표지의 數에 관하여는 각각 意見을 달리었다. 어떤 이들은 福音의 순수한 傳播라는 한가지 표지만을 말하고(Beza, Alsted, Amesius, Heidanus, Maresius),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聖禮의 정당한 施行의 두가지 표지를 주장하였으며(Calvin, Bullinger, Zanchius, Gomarus, Mastricht, á Marck),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加하여 勸懲의 신실한 시행을 말하기도 하였다(Hyperius, Martyr, Ursinus, Trelcatius, Heidegger, Wendelinus).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거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등 세 표지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의 標識로 되어 있다.

30) Inst., iv. 1, 9; 엡 2:20 참조.

31) Inst., iv. 1, 9-12.

32) Inst., iv. 1, 12.

그러나 그리스도敎의 核心속에 거짓이 스며들거나, 필수적인 敎理의 根幹이 붕괴되며, 聖禮가 파괴된다면, 목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生命이 끝나듯이 敎회는 즉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만일 신자들에게 자신의 救援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맡길 것을 명령하는 使徒와 先知者의 敎訓이 敎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교훈이 제거되었을 때 그 建物は 어떻게 存立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敎회를 지탱하는 그리스도敎의 要綱이 무너지게 될 때, 敎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참된 敎會가 ‘진리의 기둥과 터’ (딤후 3:15)라고 한다면, 기만과 허위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敎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³³⁾

그리스도는 말씀의 傳播과 聖禮의 施行을 명령하시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恩惠의 手段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수단들은 결코 공허하거나 무익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례가 시행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는 살아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가 계신 곳에는 또한 그의 백성도 거기 있게 된다. 그리스도가 臨在하신다는 이와같은 증거는, 비록 거기에 僞善者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장소에 敎會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³⁴⁾

그러므로 참된 敎회의 표지, 곧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은 보다 넓은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主로 시인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참된 敎회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례를 자주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다.³⁶⁾ 오히려 말씀과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主로 높이 들리움을 받는 곳에 그리스도의 敎會가 존재하는 것이다.

33) Inst., iv. 2, 1.

34) Calvin's Commentary on Jeremiah 15: 16.

35) Kilian McDonell, *John Calvin, the Church, and the Euchari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194.

36) cf. Niesel, op. cit., p. 194.

칼빈은 아직도 로마教會를 참된 교회로 인정하려는 사람들을 반대하여, 이 교회는 어떠한 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회의 標識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制度가 아니며, 상당한 宗教團體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단체가 누구에게 禮拜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부패한 宗派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主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主의 命令에 依해서만 지도받기를 원할 때 그렇게 된다.’³⁷⁾ 칼빈은 강조하였다. 칼빈이 참된 教會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만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의 教會論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啓示에 대한 증거요, 결코 宗教的 親交의 본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³⁸⁾

IV. 教會의 勸懲

교회가 할 일은 福音을 전파하고 聖禮를 시행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교회의 義務에는 聖化的 생활을 해 나아가도록 會員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할 일이 있다. 만일 교회의 說敎가 헛되지 않고, 聖禮가 신자들의 신앙을 충분히 強化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모든 誤謬에서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自我反省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會員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권징을 집행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敎理의 혼란과 회원들의 道德上的 추문이 있을 때에만 말씀의 純潔과 성도들의 聖化的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집행해야 한다. 교회에 혼란이 있고, 회원들에게 추한 행동이 있을 때, 이것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37)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28 : 21 ff.

38) Niesel, op. cit., p. 195.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聯合,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威嚴을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권징은 특히 그리스도와의 神秘的 聯合을 의미하는 聖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성찬과 관련된 이와같은 권징의 관념은 칼빈이 제네바 제 1차 滯留時節에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젤과 스트라스뵈의 지도자들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³⁹⁾

敎會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그 특징을 보존하고자 하면 권징은 필수불가결의 것이 된다. 일찌기 1536년 칼빈은 권징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⁴⁰⁾

권징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유되게 하려는 어떠한 可能性도 배제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反抗하고 교회 자체를 파멸의 위기에 몰아넣는 異端과 分離主義者들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교회의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키거나, 교회생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⁴¹⁾ 교회가 참된 교회나 아니냐 하는 것은 교회의 도덕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교회는 한편 파렴치한 행동으로 교회를 손상시키는 자들을 제재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限 방종한 회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러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유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으로 그리스도敎를 비방하며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들을 교회의 家族에서 추방해야 한다.’⁴²⁾

39) cf. F.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n, Thought*, tr. by Philip Mairet(Harper & Row: New York and Evanston, 1963), p. 292.

40) Inst., iv. 12, 5에서 칼빈은 권징의 세 목적을 진술한다.

41) Niesel, op. cit., p. 189.

42) Ibid. 칼빈은 여기서 다시 聖餐施行과 권징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1543년 판 기독교강요의 구절을 첨부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 점에서

둘째 권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는 일이지만, 善良한 사람들이 惡人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만일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敬畏가 유지된다고 하면, 다른 회원들도 역시 마귀에게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생각하고 있었던 권징의 둘째 목적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敎人들에게 近親相姦하는 자를 형제들 중에서 除去하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5:6)고 경고하였다. 칼빈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신자들의 엄격한 宗教의 태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倫理生活까지도 생각에 넣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칼빈이 제비마 敎會會議에 제출한 指導方針을 보아 풍부하게 입증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한 것은 신자들의 道德性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칼빈의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던 이 권징은 世俗的 司法權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法的 性格을 띠지 않은 것이 아주 명백하다. 그것은 억압적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公衆秩序를 보호하려고만 의도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칼빈이 세계 목적에서 제시한대로 그것은 언제나 靈魂의 治療에 있었다.⁴³⁾

권징의 세계 목적은 破門당한 자가 悔改하여 마침내는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와같이 惡을 행한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罰을 받고, 敎會의 채적을 맞음으로 그들의 과오를 인

주의 성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無分別하게 모든 사람을 참여케 함으로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찬의 분배를 맡은 자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자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의 몸을 개[犬]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神聖冒瀆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43) Wendel, op. cit., p. 300

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⁴⁴⁾ 권징의 最初의인 目的은 이와같이 敎育的인 데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칼빈이 敎회의 권징을 아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참된 敎會의 標識 가운데 하나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스트라스뵈의 改革者 부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점에서는 그와 의견을 달리하였다. 루터가 두 敎會의 표지(notae ecclesiae), 곧 福音傳播와 聖禮의 施行을 주장한 데 대해서 부씨는 여기에 敎회의 권징을 하나 더 加하였던 것이다.⁴⁵⁾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물론 중요했지만, 敎會概念의 本質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의 표준이며 聖化의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칼빈의 생각대로 敎회의 組織에 속한 것이지 敎회의 定義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⁴⁶⁾ 敎會는 비록 그것이 地上에 존재하는 限, 항상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聖化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敎회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會員들이 현재 罪人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다.

44) Inst., iv. 12, 5.

45) 부씨는 그의 저서 *De Regno Christi, Scripta Anglicana*, p. 36에서 참된 敎회의 표지를 말씀의 전파,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을 들고 있다.

46) Wendel, op. cit., p. 301.